

『현대유럽철학연구』 제60집, pp.307~332.

(舊 한국하이데거학회/한국해석학회 통합 학회지)

DOI

채만식 문학에 나타난 ‘가족’과 ‘자본’*

: 「심봉사」와 「흥부傳」을 중심으로

황태목(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한글요약】

이 글은 채만식의 「심봉사」와 「흥부傳」을 대상으로 텍스트에 형상화된 ‘가족’과 ‘자본’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심청전」의 결말이 어느 쪽을 지향하는 가는 일차적으로 서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둘 것인지와 연관이 있다. 「심봉사」는 기존의 구성과 달리 서사의 초점을 심청에서 심봉사로 이동하는 구성을 보여준다. 그 연장에서 심봉사는 출세지향적 욕망을 강하게 지닌 인물로 변형되는데, 여기서 심청은 아버지인 심봉사의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 점은 심청의 죽음과 심봉사의 눈뜸에 대한 욕망과 좌절이라는 비극적 결말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봉사가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찢러 다시 맹인이 되는 행위는 가족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가부장의 무능함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고전 「흥부전」은 장자상속에 나타난 형제의 빈부갈등을 통해 자본과 가족의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흥부傳」도 상속(돈)과 관련되어 현실에서 살아가는 형제간의 갈등을 다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흥부의 가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재비의 보은을 받고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설정으로 흥부의 가난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흥부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대가족의 호구지책을 해결해야 했던 채만식 자신의 현실적 모습과 겹치지면서 하나의 반어적 자기 풍자 효과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이러한 맥락에서 「홍부傳」은 장자상속에 나타난 빈부갈등을 통해서 조선의 전통적인 상속제도의 폐해를 비판하고 부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

【주제어】 채만식, 심봉사, 홍부傳, 패러디, 전통적인 가족제도, 세속화, 가부장적 전제적 권력, 교환논리, 상징적인 처벌, 장자상속, 빈부갈등, 전통적인 상속제도, 비판과 풍자

1. 서론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채만식은 다양한 형식 탐구와 풍자적 경향으로 주목받아온 작가이다. 그 형식 탐구의 한 시도로써 채만식은 조선 고전소설들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창작해 왔다. 그가 고전소설을 패러디한 작품으로는 제목만으로 패러디임을 알 수 있는 「심봉사」, 「홍부傳」, 「허생전」, 「배비장」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견우직녀 설화의 모티프를 수용한 「팔려간 몸」, 심청 이미지를 수용한 「보리방아」와 「동화」, 홍부 이미지를 수용한 「홍보씨」, 조선 고전의 모티프와 인물의 형상을 복합적으로 수용한 『탁류』와 『태평천하』 등 다수의 소설과 희곡 작품이 있다. 이렇듯 우리 고전에 대한 채만식의 재해석 혹은 재창작 작업은 집요하다할 만큼 이어진바 있는데,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주목해 볼만한 의미 있는 작품이 바로 「심봉사」와 「홍부傳」이다.

주지하다시피, 채만식은 「심봉사」라는 제목으로 네 편의 작품을 썼다. 1936년 잡지 『문장』에 발표하려 했다가 검열로 삭제당한 희곡 작품(7막 극), 1944년 잡지 『신시대』에 3회 연재하다 중단된 미완의 중편소설, 1947년 잡지 『전북공론』에 2회 연재된 희곡 작품(3막 극), 1949년 잡지 『협동』에 4회 연재하다 중단된 미완의 장편소설 등이 그것이다. 채만식은 이처럼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심청전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데, 이와 관련하

여 「심봉사」 작품군¹⁾의 첫 번째 창작 시기가 1936년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채만식이 우리 고전소설을 작품 창작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해가 바로 1936년이기 때문이다. 1936년 이전까지, 채만식은 늘 창작을 하지 못하는 피로 즉,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²⁾의 문제로 고심하였는데, 연이어 『탁류』와 『태평천하』 같은 대표작을 창작할 수 있었던 것도 「심청전」이나 「홍부전」 같은 우리 고전소설의 수용에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방 후에 쓴 3막 극을 비롯하여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개작에 착수한 소설이 「심봉사」였다는 사실은 그가 창작의 원천으로서 고전 「심청전」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채만식은 「심봉사」창작과 엇비슷한 시기에 「홍부전」을 수용한 『태평천하』를 비롯하여 「홍보씨」와 「홍부傳」을 연달아 발표한다. 채만식이 「홍부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홍부전」의 놀부 이미지를 수용하여 식민지 시대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태평천하』를 썼다는 점만 갖고도 짐작할 수 있지만, 「홍부전」 전체를 구조적으로 패러디한 소설 「홍부傳」을 발표한 사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홍부傳」은 『협동』 1947년 6월호와 『금융조합』 1947년 7월호에 2회에 걸쳐 연재된 소설로서, 채만식 전집에도 누락되었다가 뒤늦게 발견된 작품이다. 『문학사상』 자료조사연구팀이 동 잡지 2004년 3월호와 4월호에 발표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³⁾ 작품

1) 이는 동일한 표제 이외에 공통의 서사 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고려한 표현이다.

2) 채만식, 「나의 無力한 펜 한 개」, 『조선일보』, 1935.8.31.

채만식이 창작방법에 대해 고심한 흔적은 다음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무엇을?’ 과 한 가지로 ‘어떻게?’ 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해결한 듯이 보이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오 그래서 자꾸만 보고 생각하고 하지만 머리가 둔한 탓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소” (「소설 안쓰는 변명」, 『조선일보』, 1936.5.26.-30.)

3) 방민호, 「채만식의 『홍부傳』 발견의 의미-고전원본과는 다른 『홍부傳』의 패러디 기법」, 『월간 문학사상』 제577호, 문학사상사, 2004, 44.

말미에 작가 자신이 1946년 10월 22일에 탈고했다고 밝혀두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은 채만식이 서울에 잠시 머물러 있던 시점에 창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러한 「홍부傳」의 존재는 작가의 조선 고전문학에 대한 탐구가 「홍부전」 쪽에도 놓여 있었음을 방증하는 한편으로 고전의 갱신이 여전히 중요한 문학 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1936년부터 거듭된 채만식의 우리 고전소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고도 두터웠는 지를 동시에 말해주고 있다.

이런 까닭에 많은 연구자들은 채만식의 고전소설 패러디 작업에 주목해 왔다. 특히 「심봉사」 작품군의 패러디 양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세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⁴⁾ 이에 반해 「홍부傳」은 뒤늦게 발견된 관계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⁵⁾ 그러나 그만큼 고전 「홍부전」과 「홍부傳」의 패러디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폭은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홍부傳」은 「심봉사」와 함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서로 비교·검토해 볼만 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런 연구사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족’과 ‘자본’의 문제가 「심청전」과 「홍부전」 개작에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
- 4)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 황태묵, 「채만식의 고전 읽기와 그 의미-심봉사 작품군을 대상으로」, 『국어문학』 제38집, 2003 ; 정홍섭, 「채만식의 조선 고전 패러디- 「심봉사」와 「허생전」」, 『한국학보』 제29권 제2호, 2003 ; 공종구, 「채만식의 『심봉사』 계열체 서사 연구」, 『현대소설 연구』, 제55권, 2014 ; 임명진, 「채만식의 『심봉사』 4부작」, 『국어문학』 제62집, 2016 ; 정출현, 「근대전환기, 고전서사 전통의 이월과 갱신-채만식의 『심봉사』 개작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66권, 2018.
- 5) 황국명, 「고전텍스트의 변주 -채만식 <홍부傳>의 구조적 분석」, 『월간 문학사상』 제578호, 문학사상사, 2004 ; 권순궁, 「<홍부전>의 현대전 수용」, 『관소리학회』 제29집, 2010 ; 신찬경, 「<홍부전>의 홍부전 변용 양상과 패러디의 의의」, 『고전과 해석』 제30집, 2020.

2. 세속적 욕망의 희생물로서 가족

주지하는 대로, 고전 「심청전」의 기본 이야기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효녀 이야기’와 ‘봉사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렇게 두 이야기가 결합된 「심청전」은 효녀 심청이 어떻게 효(孝)를 실천하는가와 심봉사가 어떻게 눈을 뜨는가가 주된 서사구조로 전승되어 왔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중들에게 매우 익숙한 「심청전」은 ‘효녀 심청 이야기’이자 ‘봉사 개안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심청전」이 수많은 이본을 생성하며 전승될 수 있었던 것도 「심청전」의 주제인 효의 힘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안맹한 아버지의 개안을 위하여 물에 빠져 죽은 심청이 재생하여 왕후가 되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연 맹인 잔치에서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된다는 설정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러한 비논리성과 비현실성은 실상 그 어느 작품보다도 효란 과연 무엇인가? 아버의 욕망을 위해 자식이 희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그 효행의 결과로써 봉사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인가? 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 「심청전」의 현대적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채만식의 「심봉사」 작품군은 이 질문에 대한 작가 나름의 응답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작자 부기(附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① 이것을 각색함에 있어 첫째 제호를 <심봉사>라고 한 것, 또 <심청전>의 거대한 저류가 되어 있는 불교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완전히 말살 무시한 것, 그리고 특히 재래 <심청전>의 전통으로 보아 너무도 대담하게 결말을 지은 것 등에 대해서 필자로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믿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한 태도로 집필을 한 것은 아닌 것만을 말해둔다.⁶⁾

② 이 「심봉사」는 지나간 일정말기(日政末期)에 잡지 『신시대』에 연재를 시작하였다. 제4회까지로 중단이 된 것을 이번에 본지의 지면을 빌어 그 첫 회부터 다시 한 번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구소설 「심청전」에 대하여 나는 일찍부터 미흡감(未洽感)을 품고 있던 자이었다. 구소설 「심청전」이 효라고 하는……그 테마에 있어서는 족히 취합직한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한 개이 문학이나 예술이기보다는 차라리 한낱 전설의 서투른 기록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는지 모른다. 소재만은 넉넉……비극에 건질 만한 것이 있으면서도 막상 온전한 비극문학이 되지를 못하고 만 것은 여간 섭섭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노릇이다.

나는 구소설 「심청전」을 줄거리삼아 「심봉사」라는 이름으로 주장 인간 심봉사를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심청전」 하나를 꾸려 보겠다는 야심이 진작부터 있었고 이번이 그 두 번째의 기회인 것이다. 물론 나는 나의 범상한 솜씨로써 야심하는 바의 성과를 반드시 얻으리라고 자신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실패에 돌아가고 말기가 쉬울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나 이외에도 다른 작가에 의하여 앞으로 많이 시도될 것이고 그러한 동안에 어떤 한 사람의 천재적인 작가의 손에서 비로소 대비극문학 「심청전」은 완성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대비극 「심청전」의 완성의 날을 위하여 토대에 한 줌의 흙을 보태는 정도로 나는……시험의 붓을 드는 것이다.⁷⁾

인용한 ①은 7막 극 「심봉사」에 대한 부기이고 ②는 두 번째 소설 「심봉사」에 대한 부기이다. 채만식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심봉사」의 개작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작품의 환상성 제거와 현실성 강화. 둘째, 심청과 심봉사의 비극적 상황 강조. 셋째, 행복한 결말을 비극적 결말로 전환. 넷째, 작품의 제목을 「심봉사」로 변경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 성

6) 채만식, 「심봉사」, 『채만식전집』, 제9권, 창작과 비평사, 1989, 101. 7막 극과 3막 극은 『채만식전집』 제9권, 첫 번째 미완 소설은 『채만식전집』 제6권을 텍스트로 삼았음을 밝힌다. 이하 작품 인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형식과 쪽수만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7) 「심봉사」, 『채만식전집』, 정홍섭 편, 현대문학, 2009, 159~160. 이하 작품 인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형식과 쪽수만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두 차례의 소설 개작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모두 미완으로 그치고 말았지만⁸⁾ 두 차례의 회곡은 자신의 의도대로 개작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작가가 「심봉사」를 창작함에 있어 작품의 현실성과 비극성을 부각하는 데 주된 관심을 쏟았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고전 「심청전」을 개작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나 문제의식이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작가가 현실성과 비극성에 주안점을 둔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만식의 「심봉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는가?

「심봉사」에서 우선 주목해 볼 것은 안맹한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 희생한 심청이 천으로 살아나 왕후가 된다는 내용과 심봉사가 눈을 뜬 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결말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7막 극과 3막 극 「심봉사」에 모두 공통적이다. 이에 따라 심청의 효와 심봉사의 개안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원전에 비하여 채만식의 「심봉사」에서는 ‘효행’과 ‘개안’이 현실적 세계관에 의해 분리되어 나타난다. 그로 인해 「심봉사」에는 심청의 죽음이 환기하는 슬픔과 딸을 죽게 만든 심봉사의 비정함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극적인 구성은 비극적 결말을 향해 가는 이야기의 현실적인 구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심봉사」의 결말 부분은 죽은 심청을 연기하는 가짜 심청에 의해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심봉사의 행위는 반전이라 할 만큼 충격적이다.

① 장승상 부인 :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그래서 심생원이 눈을 뜨니까 질겁을 해서 달아났다우. 그리고 정말 심청이는, 여보 심생원 정말 심청이는 임당수에서 아주 죽었……

심봉사 :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각 찌르면서 엎드려진다) 아이구 이놈의 눈구멍! 딸을 잡아 먹은 놈의 눈구멍! 아주 눈알맹이째

8) 잡지의 폐간(1944년 개작)과 신병으로 인한 집필 중단(1949년 개작)을 직접적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빠져버려라(마디마디 사무치게 흐느껴 운다)아이구우 아이구우.
 심봉사 :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하수로 걸어간다. 눈은 눈알이 빠져서 아주 움푹 들어가고 피가 흐른다) 아이구 아이구우 아이구우, 가자 가자 망녀대를 찾아가야 망녀대로 가자아.(7막극, 100-101)

② 송달 : 청이의 극진한 효성이 인제야 비로소 염험이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의 먼 눈을 뜨시게 하자구, 임당수 제속으로 몸을 팔아 (울면서) 공양미 3백 석 시주를 헌 그 정성 그 효성이 인제야 비로소 영험이 나타났습니다. 기뻐하세요. 청이는 없어 섭섭해서두 그 극진한 효성을 여겨, 기뻐하세요.(…중략…) 심청이가 그대지두 뜨시게 해드리구 싶어 허든 눈을 뜨시잖았어요?

심봉사 : (허탈되어) 그럼, 그럼 우리 청이는 영영 죽구?

송달 : 죽었어두 살었으나 다름없습니다. 만대나 살 효성 아네요?

심봉사 : (맹렬히) 영영 죽어? 영영 우리 청이가 죽어? 이 늙어빠진, 송장 다 된, 아무 소용두 없는 애비 하나 눈떠주자구.(…중략…) 이 눈구멍 때문에 자식을 죽여? 천하를 주어두 아니 바꿀 내 자식을, 우리 청이를 죽여? 응응(이를 뵈도독, 가리키던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두 눈동자를 찌른다)(3막극, 196)

인용한 ①은 7막 극 「심봉사」의 결말 부분이고 ②는 3막 극 「심봉사」의 결말 부분이다. 두 편의 희곡은 모두 심봉사가 자신의 손으로 눈을 찢러 눈을 멀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결말 양상은 그 기본 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7막 극 「심봉사」와 3막 극 「심봉사」는 계략의 주체와 과정에 있어서 차이를 지닌다. 7막 극 「심봉사」는 심청의 얘기를 전해들은 왕후가 장승상 부인과 함께 거짓 연극을 꾸미는 것에 비해 3막 극 「심봉사」는 송달을 짝사랑하는 흥녀라는 인물이 심청 역할을 자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심청전」에서 심봉사가 눈을 뜨고 딸과 만나는 설정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말은 작가 자신의 진술처럼 대담하게 결말을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결말은 그리스 고전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의 결말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비극의 주인공인 오이디푸스처럼 스

스로 자신의 눈을 찢러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눈알을 후벼 파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는 장면은 실로 참혹하기까지 하다. 심청의 죽음으로 심봉사가 비극적인 파국을 맞게 되는 이런 결말은 결과적으로 심봉사의 비극이 도저히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다. 그 점에서 두 편의 희곡에 나타난 심봉사의 극단적인 자해 행위는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하여 딸을 죽게 만든 죄를 지은 아버지의 죄책감이나 죄의식과 관련이 있다 할 것이다. 딸 팔아먹은 아버지 심봉사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이를 뒷받침한다.

「심봉사」는 이처럼 「심청전」에서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후반부의 낭만적 해결을 제거하여 작품의 현실성과 비극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에 개작의 방점을 두었다. 그 결과로 「심청전」은 현대판 비극으로 재탄생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전소설인 「심청전」을 근대소설의 형식으로 다시 읽어내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대체로 전근대적 서사문법(예컨대 심청의 영웅적 면모와 낭만적 결구)을 지우고 근대적 서사문법(예컨대 현실 가능한 사건 배치와 인과적 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⁹⁾ 서사의 초점을 심청에서 심봉사로 이동하여 행복한 결말을 비극적 결말로 전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효행의 현실적 효과와 행복한 결말의 부정에 개작의 핵심이 놓여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우리 고전에 대한 작가의 치열한 탐색과 문제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근대 세계에서 효란 과연 무엇인가? 근대적인 지평에서 죽은 자식이 살아나고 봉사가 눈을 뜰 수 있는 것인가? 가난한 현실에서 딸 팔아먹은 결과는 비극이 아니겠는가? 라는 의문이 효라는 조선 사회의 지배적 윤리의식과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탐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심봉사라는 인물이

9) 황태목, 「채만식의 고전 읽기와 그 의미-심봉사 작품군을 대상으로」, 210.

다. 앞서 살핀 「심청전」의 심봉사나 「심봉사」의 심봉사는 모두 전통적 가부장을 상징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심봉사」에 등장하는 심봉사는 「심청전」의 심봉사에 비해 훨씬 더 세속화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심봉사의 모습을 작가는 다음과 같이 회화적으로 풍자한다.

① 그래저래, 하루 한시도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한 원님은 ‘어서 제발, 눈을 떴으면……’ 하는 것이었다. (…중략…) 눈을 떠 광명을 보고, 아낙을 내어놓아 품을 팔아다 구복을 도모하던 창피를 면하고 한다는 것만 하여도 크기 아니한 바 아니나, 진정 심학규의 더 곡진한 욕망은 과거를 본다는 데 있었다.

‘눈을 떠, 과거를 보아, 급제, 벼슬, 승차, 또 승차, 몸의 영달과 빛나는 가문, 네 대 만에 비로소 풀리는 유한. 지하에서 안심하실 선영 제위…….’(1944년 소설, 171)

② 심봉사: (방에서) 허어 또 잊었구나 또 잊었어! 이 일을 어떡헌단 말이고, 이렇게 잊어버리다가는 요행 눈을 뜨기로소니 무슨 수로 과거를 보드란 말이고, 무슨 수로, (間) 천하지부조묘장자 | 과의니, 천하지부조묘장자 | 과의니, 그러구는 그 뉘이 무어드라마서두, 천하지부조묘장자 | 과의니, 과의니, 종시 생각이 아니 나. (間) <맹자> 한 권을 가지구 잊어버리는 대문이 이대지두 많으니 어허빨싸 내 일이 크게 낭패가 아닌가(3막 극, 172)

③ 먼눈을 떠서 다시 광명을 보고, 그리고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여 모모가 가문을 빛내며 선영의 뜻에 갓으며 이려고 싶은 원님과과는 따로 이 또 한 가지 꺾절한 욕망이 슬하에 자녀간 혈육을 두어보고 싶은 그것이었다.(…중략…)

“그러나, 인전 어쨌든,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하나를 낳 도리를 하란 말요, 응? 깨목불알에 고추자지가 대롱대롱 달린, 응?”

“욕심 같아서야 어련할까만서두, 그것인들 인력으루나 뜻 같이 되는 노릇이어야 말이죠.”

“아마 이왕이면 당장으루, 이왕 생기는 바이면 딸자식보담은 아들자식을……, 그 말 아뇨?”(1949년 소설, 156-166)

인용한 ①과 ②와 ③의 심봉사는 모두 개인적인 출세의 욕망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다. 예컨대 ①에서는 과거를 통해 출세하기를 염원하는 심봉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②에서는 서툴게 글을 읽으며 과거 불 걱정을 하는 심봉사의 모습이 나타나며 ③에서는 입신양명과 아들을 바라는 전통적 가부장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심봉사의 모습이 「심청전」의 심봉사와 대비됨은 말할 것도 없다. 판본에 따라 편차는 존재하지만 「심청전」에서 심봉사는 대체적으로 눈뜰을 바라는 존재였지 이토록 세속적 욕망이 강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만식의 심봉사는 앞서 보는 바와 같이 분별력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더욱이 심봉사의 개인적인 욕망의 성격은 과거를 향한 염원과 출세지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눈을 다시 뜨는 것이지만, 문제는 심봉사가 장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심봉사의 이 ‘앞 못 봄’이야말로 예의 전통적 가부장의 무분별함과 무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¹⁰⁾

심봉사의 출세지향적 성격은 앞 뒤 분별없이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로 약속하여 자신의 딸자식을 인당수의 제수로 내모는 상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심청전」에서 효를 담보로 한 심청의 희생은 가족관계를 복원시키고 심봉사의 개안이라는 행복한 보상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심봉사」에서 심청의 희생은 심봉사의 불순한 욕망에 포획되어 그 자체 교환과 거래의 대상으로 도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심청의 효행은 거룩한 희생의 힘을 잃고 심봉사의 세속적 욕망에 기여하는 수단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은 자본의 간계와 교환의 논리가 만연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적 가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적 형상화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양미 3백 석 시주허구서 먼 눈을 뜨랴이면 이 세상 웬만헌 장님 죄다 눈을 뜨지 그냥 있

10) 정홍섭, 「채만식의 조선 고전 패러디-「심봉사」와 「허생전」, 51~52.

을 상부르냐?”(3막 극, 183-184) 라는 극중 송달의 물음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딸을 희생양으로 삼은 심봉사의 그릇된 욕망과 행태에 대한 작가의 이의제기이자 문제제기라 할 것이다.

채만식이 『탁류』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무능한 남성에게 희생되고 수난당하는 여성의 삶에 주목한 것도 가부장제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족제도에 대한 채만식의 비판의식이 투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탁류』의 정주사와 초봉의 모습이 채만식의 심봉사나 심청과 겹쳐져 읽힘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봉사가 다시 자기 눈을 찢러 맹인이 되는 행위는 가족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가부장의 무능함에 대한 처절한 응징이면서 “자신을 포함하여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지식인과 민중에 대한 매서운 질책”¹¹⁾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자상속에 나타난 빈부갈등의 문제

대략 18세기 중엽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홍부전」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 대중의 인기를 누리며 꾸준히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전통적 서사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홍부전」은 오늘날의 대중들에게는 형제간의 우애나 인과응보를 주제로 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작품은 단순하게 악한 형과 착한 동생으로 이분되는 이야기가 아닌, 당시의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홍부전」을 볼 때 이 작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장자상속에 나타난 빈부갈등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재산상속 관행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이르러 자녀간 균분상

11) 황태목, 「채만식의 고전 읽기와 그 의미-심봉사 작품군을 대상으로」, 219.

속¹²⁾ 관행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시대 재산 상속의 특징은 자녀간 균분상속으로, 이는 고려시대로부터 계승된 관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를 받들어야 하는 승중자에게 주어지는 봉제사를 제외하면 재산 상속에서 장차남이나 남녀의 구별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7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균분상속에서 딸이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장자 우대, 남녀 차별의 상속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균분상속과 함께 시행되던 윤희봉사도 점차 사라지고 장자 단독봉사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¹³⁾

「홍부전」은 균분상속에서 장자상속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비판적인 사회적 논평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동생과 탐욕스러운 부자 형의 대립을 토대로 우애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장자상속의 문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말하자면 조선 후기 장자상속 관습이 시행된 직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을 형제간의 관계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것이다. 그러기에 「홍부전」에는 상속(돈)과 관련되어 현실에서 살아가는 형제간의 갈등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 「홍부전」의 현대적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놀부에 대응하는 인물로 윤직원 영감을 등장시켜 식민지 시대를 총체적으로 풍자한 『태평천하』나 현대판 흥부 현서방의 하루 일과를 그리고 있는 「홍보씨」는 문제의식에서 「홍부전」의 그것과 닮아있다. 채만식이 다시 쓴 「홍부傳」 또한 원전의 장자상속에 나타난 빈부갈등과 가난의 고통을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12) 균분상속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출생 순서를 가리지 않는 균분을 특징으로 한다.

13) 문숙자,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 제39권, 2019, 118-145.

라 할 수 있다. 곧 가족과 자본을 문제로 삼은 것이다.¹⁴⁾ 이때 채만식은 「홍부傳」을 구성함에 있어 심정순이 구술하고 이해조가 산정한 「연의각」을 수용하여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홍부傳」과 「연의각」의 내용을 대비해보면 상당 부분이 동일함에도 여러 대목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⁵⁾ 그렇다면 채만식의 「홍부傳」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는가?

우선 주목해 볼 것은 놀부와 놀부 아내의 심술에 대한 과장을 통해 부정적인 면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가령, 작품의 1절은 “놀부는 심술이 대단히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¹⁶⁾라고 시작하여 쫓겨나는 홍부 가족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여기에 시주승에게 두 엄을 퍼주는 ‘장자못 설화’와 홍부 가족을 쫓아내는 ‘심술사설’을 더하여 놀부의 심술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홍부를 내쫓는 과정과 홍부가 양식을 구하러 놀부의 집에 찾아온 과정에서 「홍부傳」은 놀부 아내를 등장시키는데, 이때 놀부 아내는 놀부보다 더 악인적 면모를 보인다. 가령, 홍부의 선한 태도에 성을 내며 매질을 하던 놀부에게 “아주 내쫓고 말아요. 두고 그 꼴을 어떻게 보우?”(①, 32)라 하며 쫓아내거나, 부엌으로 찾아온 시동생 홍부를 물에 씻은 주격으로 “이 뺨, 저 뺨 번갈아 가면서 수없이 때”

-
- 14) 즉 당시 장자상속이 유행한 사회적 갈등을 현대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삶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자가 된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눔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시대 이상적인 부와 나눔의 인식에 대해서는 서신혜, 『한국 전통의 돈의 문화사, 나눔의 문화사』, 집문당, 2015 참조
- 15) 「홍부傳」과 「연의각」삽화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 홍부와 놀부가 ‘연’ 씨라는 점 ② 놀부가 홍부를 내쫓으며 5대조 묘막에 가서 살라고 한 점 ③ 홍부 부부의 품팔이 사설 ④ 곡식을 꾸러 놀부 집을 찾아가 ⑤ 환곡을 얻으러 갔다가 이방에게 매품 제의를 받음 ⑥ 매품팔이에 대한 자세한 경과 ⑦ 홍부 집을 찾아온 놀부의 행패 ⑧ 놀부의 박에서 나온 인물-양반, 노승, 무당패, 소경들, 사당패. 이에 대해서는 권순궁, 「〈홍부전〉의 현대전 수용」, 16.
- 16) 채만식, 「홍부傳」, 『월간 문학사상』, 제577호, 문학사상사, 2004, 24. 이하 작품 인용에 대해서는 본문에 형식과 쪽수만 표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편의상 제 577호와 실린 「홍부傳」은 ①, 제578호에 실린 「홍부傳」은 ②로 표기한다.

(①,43)리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포악함까지 더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다.

놀부가 흥부를 내쫓으면서 세간을 나누는 부분도 내용에 차이가 있다. 「흥부傳」이 「연의각」과 변별되는 점은 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① 이놈 흥보야, 부모의 세간 던답, 나 혼즈 가졌다 홀 터이니, 세간 눈 우막를 흐자흐더니 나는 장손이 되여, 봉제스를 홀 테이게, 이 집은 내가 츠지홀 터이니, 네가 집 업서 쓰겟느냐 집은 다 일반이라, 오 더조 묘막 집에 가 살고, 압뒤 썸 썸던장을 내 가질게, 무지공산 돌담불은, 네 가져라, 집안 세간 마소 증싱 남중 녀중 내 가질게, 칠 십 된 괴똥 어미, 네 차지니, 하인 업서 쓰겟느냐, 더리고 가고 개 증싱 썸똥이며, 마당 압 치던이며, 개똥 밤이 닷 말 락과, 집 압똥 고리실, 열두 섬 닷 마직이, 그 논 모다 너 가질게, 너을낭은 나가서, 밥이라도 히 먹으라면, 부정지속 업서 쓰겟느냐호더니, 안으로 드러가, 세간을 주는데, 밋 빠진 질탕관, 헌 솟쪽경 꺾드리고, 디테 메인 동의 한아, 귀 찌러진 스발 네가, 질쪽뻥이 꺾드리고, 목 부러진 나모 주직, 목져 네 메 꺾드리고, 다라빠진 쇠천 술가락 다샷 기에, 헌 소반 한아 언져주고, 먹던 짐치 한 동의에, 장물 반 동의 언져주고, 썸된장 홀 방고리, 고초장 홀 스발, 언져주고, 맛업는 식우젓 한 스발에 소곰 한 박 언져 주고, 쉬여 터진, 보리 찬밥 한 박아 지 니여 주며¹⁷⁾

② “이놈, 네 소행으로 하면 집 한 칸, 밭 한 되직이 변동 없을 것이로되, 나는 너같이 무도한 놈이 아니어. 해서 저 석밭골 오대조 할아버지의 산소 하에 있는 산막(山幕)과 거기 딸린 논 두 섬지기와 밭 한 섬지기를 직분(職分)해 주는 것이니 가 살아라. 것만 가지면 너만 부지런하면 당대에 부자 소리 들을 전장이다.”(중략) 시월인데 명년 봄 곡식이 낫 때까지 먹을 양식이라면서 형 놀부가 주는 서숙(黍粟) 한 말, 수수 한 말, 싸래기 한 말을 갈아서 젓먹이를 등에 업은 흥부 마누라가 머리에 이고 열여섯 살박이 큰놈이 멜빵 걸어 짊어지고 하였습니다. 놀부 마누라가 이름 좋게 세간이라 시고 살강

17) 이해조, 「연의각」, 『매일신보』, 1912. 5. 1.

밑에서 와 방 구석과 울타리 밑에서 골라주는 금 간 솔 한 개, 이 빠진 사발 아홉 개, 깨어진 뚝배기 아홉 개, 몽당 순가락 아홉 가락, 비뚤어지고 깨어진 향아리 두 개, 깨진 물독 한 개, 자루만 남은 식칼 한 자루, 모서리 깨진 개다리소반 한 개, 그리고 연장으로 도끼, 자구 톱, 낫, 쇠스랑, 팽이, 호미, 쪼다가 못쓰게 된 연장 각각 한가락씩 이렇게를 흥부가 지계에 실었습니다.(①, 33-34)

인용한 ①은 「연의각」에서 놀부가 흥부를 내쫓으며 세간살이를 나누는 장면이며, ②는 「흥부傳」에서 흥부가 놀부에게 몇 가지 세간살이를 얻어 쫓겨나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 대목은 여타 이본에는 없고 오직 「연의각」과 「흥부傳」에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연의각」의 놀부는 봉제사를 기리는 장남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대부분의 재산과 세간을 더 많이 차지한 이유를 그럴 듯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놀부의 재산 획득은 그가 장남으로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세간 전답을 차지하고 저 혼자 호의호식하며 제 부모께 제사를 지내어도 제물을 아니 장만하고 대전으로 놓고 지내”¹⁸⁾거나 부모를 대신하는 형으로서 동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독점적인 그의 재산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흥부傳」은 놀부가 장자로서 재산과 세간을 상속 받은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작품 초반에 서술된 놀부의 생각 중 “자식이 없으니 장차 늙어 죽는 날이면 명색이 조카자식이라고 해서 흥부의 자식이 사후(死後) 양자(養子)로 들어올 것이오, 그러는 날이면 재산은 몽땅 다 흥부의 것이 될 거이니”(①, 30)를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가계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게 되면 그 양자에게로 재산이 상속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흥부傳」의 놀부 역시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을 통해

18) 이해조, 「연의각」, 1912. 4. 30.

볼 때 「홍부傳」과 「연의각」은 각각 장자상속으로 인한 빈부갈등의 시대상을 온전히 배경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놀부가 집안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던 데는 그의 능력 밖의 어떤 힘, 바로 장자상속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습 때문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놀부는 그러나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였지만 중이나 걸인한테 쌀 한 줌, 돈 한 푼 동냥을 주는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①,24)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정의 여지가 없이 탐욕스러운 인물이다. 이는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면서 동생인 홍부 가족이 먹는 적은 양식을 아까워하는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놀부가 세간 분배를 하면서 인정을 베풀었을 리는 만무하다. 실제로 「홍부傳」에서 놀부가 나누어 주는 재산이라는 것을 보면, ‘오대조 산막’, ‘삼년이나 산 속에 버려진 논과 밭’에 불과하고, 함께 내주는 세간이란 ‘금 간 술 한 개’, ‘이 빠진 사발 아홉 개’, ‘자루만 남은 식칼’ 등 실상 쓸모없는 것들뿐이기 때문이다. 한껏 생색을 내며 홍부에게 쓸데없는 세간살이 몇 가지를 안겨주는 이 대목 또한 놀부의 탐욕스러운 성격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채만식의 「홍부傳」에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부분은 놀부에게 쫓겨난 이후의 정착과정에서 홍부의 가족이 겪는 가난의 참상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 대목은 「홍부傳」 전체에서 약 50% 정도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⁹⁾ 특히 황무지에 가까운 척박한 밭을 일구며 홍부 가족이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장면은 어느 이본에도 없는 독특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19) 채만식의 「홍부傳」은 모두 6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1절은 놀부의 심술과 쫓겨나는 홍부 가족 이야기, 2절은 황무지에 가까운 척박한 곳에서 홍부 가족이 애쓰며 살아가는 이야기, 3절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홍부 가족 이야기, 4절은 가난의 고통에 홍부가 매품을 팔러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이야기, 5절은 제비의 보은 이야기, 6절은 탐욕으로 놀부 내외가 패망하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로 보아 홍부 가족의 가난에 대한 형상화가 작품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요한다.

홍부 내외와 열여섯 살박이 큰 놈과 셋이서 오늘도 저물도록 밭에서 풀뿌리를 뽑고 있습니다. 무섭게 찌른 풀뿌리는 캐내도 캐내도 한정이 없습니다. 그동안 벌써 닷 새나 두고 세 식구가 이른 아침부터 저물게까지 밭에만 매달려 있었으나 보리씨 서 되를 뿌릴 한 말지기 밭을 갈지 못하였습니다. 서속 한 말, 수수 한 말, 피 한말, 싸래기 한 말 이것도 통 타 가지고 온 양식이니 먹긴들 배불리 먹을 리가 없는 것, 시장한 허리띠를 몇 번이고 졸라매면서 깊이 찌를 풀뿌리를 몽당 호미로 캐느라고 꼬부라졌던 홍부 마누라가 문득 호미 자루를 놓고 먼산 바래기를 하다가 휘유 한숨을 쉽니다.. “이다지 애를 쓰고 심어야 먹을지 말지 한 것을”(①, 35)

형에게 쫓겨나 5대조 산막에 나름 거처를 정하고 나서 홍부는 식량을 마련할 요량으로 가지고 온 싸래기와 보리씨 서 되를 바꾸는 적극성을 보인다. 하지만 보리씨는 마련이 되었으나 보리씨를 심고자 한 일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때가 많이 늦기도 했지만 심을 밭이 더 문제였다. 그 밭은 홍부가 직분 받은 토박한 땅 중에서도 가장 형편이 없는 석밭(石田)이었던 까닭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홍부 내외는 거친 밭을 일구는데 진력을 다하지만 궁핍한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홍부 가족이 힘든 노동을 바쳐도 수확할 수 없는 처지는 홍부의 가난이 결코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점에서 「홍부傳」에서의 홍부의 행동이나 성격은 어느 이본에서보다 더욱 가난한 자의 초조함이나 여유 없음이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 홍부 내외의 품팔이가 등장한다. 식량이 없어 사흘을 굶다가 결국 품팔이로 나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홍부는 품팔이를 하지 못한다. 이는 홍부의 정착지가 “원체 가난한 동네가 되어서 우선 품팔이도 별로 없었”(①, 37)던 까닭이다. “그래서 무엇이든 품 거리가 있으면 진일, 구진 일, 상관 아니 하

고 내외가 나와서 부지런히 품팔이를 하여 하루 한 때씩이라도 어린 것들과 입에 풀칠을 하고 그거나마 없는 날이면 할 일 없이 굶고 하다가 엄동(嚴冬)을 딱 당하”(①, 37)고 만다. 그나마 엄동에는 품팔이도 없어 흥부는 놀부에게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놀부 내외에게 매만 맞고 쫓겨나오게 된다. 그런데 경판본과 「연의각」에서는 품팔이 장면 보다 놀부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삽화가 먼저 등장하는데 비해 「흥부傳」에서는 엄동으로 품팔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놀부에게 가는 것으로 내용이 뒤바뀌었다. 이는 가난을 대하는 흥부의 태도와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에게 양식을 구걸하다가 퇴짜를 맞고 쫓겨나오는 장면에서도 “흥부는 하도 굶고 원통하여 목을 놓고 통곡을 하고 싶”(①, 43)다고 현실성 있게 바꾸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부의 낯선 반응은 가난을 극복하려는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나온 설움의 푸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자식들이 나흘을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흥부는 길청으로 환곡을 얻으러 갔다가 급기야 매품을 계약하게 된다. 매품으로라도 가족의 먹을 것을 해결하려 하는 이 같은 상황은 흥부의 처지가 얼마나 절박한 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장으로서도 흥부가 결코 무능하거나 무책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흥부가 매품 노자로 받은 돈과 수작하는 ‘돈타령’이 나오고, 그 끄트머리에 매 맞으러 간 남편의 무사생환을 위해 밤낮으로 치성을 드리는 흥부 아내의 형상이 확장 부연되어 있다. 그러나 “나라에 경사(慶事)가 있어 살인죄 외에는 어떤 죄인이든지 일체 다 방송(放送)하라는 명이”(②, 22) 내려지면서 결국 흥부의 매품팔이는 실패하고 만다.

매품으로 돈을 버는 것도 실패로 끝나자 흥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감해 한다. 이에 흥부 아내는 “그러지 마세요. 매품 팔아 부자장자 되었다는 말 들었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굶주리면 굶주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매품이라니 아예 당한 말이요.”하고 “굶어 죽기는 정승 하기보다 더 어렵답디다. 매품을 팔도록 마음

이 골똥하다면 무슨 짓을 하기로서니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소.” (②, 25)라고 한다. 가난은 힘들어도 이의 극복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한마디로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흥부 아내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후의 전개되는 서사는 흥부의 가난 극복과 놀부의 파멸로 진행된다.

주지하다시피 「흥부전」과 「연의각」에서의 흥부의 가난 극복은 제비의 보은이라는 낭만적이고 우연적인 사건 설정을 통해서 가능했다. 「흥부傳」 또한 원전 텍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흥부가 거둔 박통 수와 내용을 보면 꽤나 큰 차이가 있다. 「흥부전」과 「연의각」에서 흥부는 3통의 박을 거두고 큰 부자로 거듭나지만, 「흥부傳」에서 흥부는 1통의 박을 거두고 그저 살기에 넉넉한 농군으로 형상이 변화한 것이다.

“대체 당신들은 어디서 온 양반들이시오?” “강남 제비왕의 명을 받고 연생원한테 은혜를 갚어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거나 한 잔씩들 자시고 오늘밤 폭신 주무시오. 내일 아침에 깨어보면 다 아시리다.” (중략) 흥부가 보니 마느라가 새옷을 말쑥하게 갈아입었습니다. 사치스러운 비단 옷은 아니요, 농군의 아름답게 수수한 무명옷이니, 아무튼 일찍이 보지 못하던 새옷입니다. (중략) 부엌에는 큰술 중술 옹술이 걸리고 살강과 공상에는 주발(周鉢)대접이며 수저하며 소반(小盤)이 이 또한 농군의 살림에 알맞은 것으로 구비하여 있습니다.(②, 31-33)

판본에 따라 편차는 존재하지만 흥부가 3통의 박에서 얻은 물건은 대체적으로 선약, 온갖 비단과 세간, 집, 곡식, 돈, 순금케작, 금은보화, 남녀종, 양귀비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흥부傳」의 박에서는 금은보화나 화려한 비단 등속, 남녀종은 나오지 않는다. 그저 “농부와 그 가족이 입기 좋은” 수수한 무명옷이나 “농군의 집으로 알마진 상하채 초가집”(②, 32)뿐이다. 그래도 흥부의 아내는 “꿈에라도 이런 넉넉한 세상 한번 살아보니 나는 원없”(②, 32)다고 말한다. 인과론을 중시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흥부가 박씨를 얻어 부자가 됐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이고

낭만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대의 「홍부전」 향유자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수용되어졌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장자상속의 수혜자인 장자에게 이러한 결말은 불쾌했을지도 모르지만 상속권을 빼앗긴 홍부를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이들에 대해 동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얼마간 공감대를 얻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다. 즉 욕심 많고 인륜을 저버린 놀부의 파멸을 통해서 놀부의 과도한 탐욕을 비웃고 가난 끝에 요행으로 부자가 된 홍부를 통해서 연민과 동경의 느낌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애초 「홍부전」과 「연의각」에 등장하는 박은 탐욕스러운 놀부의 징치를 바라는 민중들의 분노를 상징하는 동시에 꿈에서라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홍부傳」의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원작에 대한 개작의 양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낭만적인 방식의 문제 해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본을 대담하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원본의 변주에 가깝다.”²⁰⁾라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채만식이 체비의 보은에 비중을 두기보다 작품의 현실성과 통일성에 한층 더 매진한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지적도 작품에 담겨 있는 작가의식의 일면만을 주목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전에서 25~30명 내외이던 홍부의 자식을 8명으로 바꾼 것이나, 보수박에서 나온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패가 망신하고 병신이 된 놀부 내외에게 홍부가 “제 큰 아들로 양자까지 정하여 평생토록 잘 봉양”(②, 44)했다는 것도 매우 현실적인 설정이라 하겠다. 이러한 설정들은 지난 이야기의 과장과 모순을 바로잡아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려는 근대 작가의 자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채만식이 작품에서 빈민을 대표하는 홍부의 가

20) 황국명, 「고전텍스트의 변주 -채만식 <홍부傳>의 구조적 분석」, 『월간 문학사상』, 55.

난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한 양상 역시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부분이다. 제비의 보은을 받고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홍부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9남매의 5남으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밤낮 없는 글쓰기로 대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던 채만식 자신의 현실적 모습과 겹쳐지면서 하나의 반어적 자기 풍자 효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즉 채만식은 홍부와 동일시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홍부 당대의 장자들이 가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폭력성 및 탐욕을 비판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비취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이미 1939년 현실을 외면한 채 동화의 세계로 도피한 홍부에 대한 해방 이후의 재해석”²¹⁾이라는 지적이나 “채만식의 「홍부전」은 해방 이전의 「홍부씨」와 동궐에 있다”²²⁾는 지적은 작품의 실체에 다가간 평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채만식의 「홍부傳」은 장자상속에 나타난 빈부갈등을 통해서 조선의 전통적인 상속제도의 폐해를 비판하고 부정 의지를 반영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채만식이 「홍부傳」에서 말하고자 했던 비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채만식의 「심봉사」와 「홍부傳」을 대상으로 텍스트에 형상화된 ‘가족’과 ‘자본’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심청전」의 결말이 어느 쪽을 지향하는 가는 일차적으로 서사의 초점을 누구에게로 둘 것인지와 연관이 있다. 「심봉사」는 기존의 구성과 달리 서사의 초점을 심청에서 심봉사로 이동하는 구성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심봉사는 출세지향적 욕망을 강하

21) 권순궁, 「〈홍부전〉의 현대전 수용」, 21.

22) 황국명, 「고전텍스트의 변주-채만식 〈홍부傳〉의 구조적 분석」, 55.

게 지닌 인물로 변형되었는데, 여기서 심청은 아버지인 심봉사의 세속적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비극적 결말을 향해 가는 이야기의 현실적인 구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연장선에서 심봉사가 스스로 자신의 눈을 찢어 다시 맹인이 되는 행위에는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하여 딸을 죽게 만든 죄를 지은 아버지의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결말은 가족을 희생의 대상으로 삼은 전통적 가족제도와 가부장의 무능함에 대한 처절한 응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홍부전」은 조선 후기 장자상속 관습이 시행된 직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겪고 있었을 형제간의 관계를 문학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홍부傳」도 상속(돈)과 관련되어 현실에서 살아가는 형제간의 갈등을 다루었는데, 이 과정에서 홍부의 가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제비의 보은을 받고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설정으로 홍부의 가난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홍부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대가족의 호구지책을 해결해야 했던 채만식 자신의 현실적 모습과 겹쳐지면서 하나의 반어적 자기 풍자 효과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홍부傳」은 장자상속에 나타난 빈부갈등을 통해서 조선의 전통적인 상속제도의 폐해를 비판하고 부정의지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해석하였다.

참고문헌

- 채만식, 「심봉사」, 『채만식선집』 정홍섭 편, 현대문학, 2009.
- _____, 「홍부傳」 제1편, 『월간 문학사상』 제577호, 문학사상사, 2004.
- _____, 「홍부傳」 제2편, 『월간 문학사상』 제578호, 문학사상사, 2004.
- _____, 「심봉사」, 『채만식선집』 제6권. 창작과비평사, 1989.
- _____, 「심봉사」, 『채만식선집』 제9권. 창작과비평사, 1989.
- 공종구, 「채만식의 『심봉사』 계열체 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55권, 2014.
- 권순궁, 「〈홍부전〉의 현대전 수용」, 『관소리학회』, 제29집, 2010.
- 문숙자,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 제39권, 2019.
- 방민호, 「채만식의 『홍부傳』 발견의 의미-고전원본과는 다른 『홍부傳』의 패러디 기법」, 『월간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2004.
-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 서신혜, 『한국 전통의 돈의 문학사, 나눔의 문학사』, 집문당, 2015.
- 신찬경, 「〈홍보씨〉의 홍부전 변용 양상과 패러디의 의의」, 『고전과 해석』, 제30집, 2020.
- 이해조, 「연의각」, 『매일신보』, 1912.4.29-6.7.
- 임명진, 「채만식의 『심봉사』 4부작」, 『국어문학』 제62집, 2016.
- 정출현, 「근대전환기, 고전서사 전통의 이월과 갱신-채만식의 『심봉사』 개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6권, 2018.
- 정홍섭, 「채만식의 조선 고전 패러디-「심봉사」와 「허생전」」, 『한국학보』 제29권 제2호, 2003.
- 최진형, 「「홍부전」의 전승 양상-출판문화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4권 제4호, 2006.
- 황국명, 「고전텍스트의 변주 -채만식 〈홍부傳〉의 구조적 분석」, 『월간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2004.
- 황태목, 「채만식의 고전 읽기와 그 의미-심봉사 작품군을 대상으로」, 『국어문학』 제38집, 2003.

<Abstract>

The Family and Capital in the Chai Man-sik's Literature
One study of Shim-bongsa and Heongbu-傳

Tae-Muk HWANG
(Jeonju Univ.)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and 'capital' that have been embodied in Chae Man-Sik's texts <Shimbongsa> and <Heungbu-傳> and to examine what they signify. The ending of <Shimcheongjeon> is dependent on who is first focused upon in the narrative. In the extension line, Sim-Bongsa is transformed into a person who has a strong desire for success, and Sim-Cheong is instrumentalized as a means for achieving the secular desire of his father, Sim-Bongsa. This was the tragic ending of Shim Chung's life and his desire and frustration for the eyes of Sim-Bongsa. In this context, the aspect of Sim-Bongsa's self-plaguing blindness reflects the traditional family system that led to the family being subjected to sacrifice and the terrible punishment for the incompetence of the patriarch.

On the other hand, the classic <Heungbujeon> is a work that highlighted the problems of capital and family through the conflict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ith regard to the succession of the eldest son. The <Heungbu-傳> also dealt with the real-life conflict related to inheritance (money) between actual brothers, which signifies the characteristic that emphasizes

the poverty of Heungbu and his efforts to overcome the same. Specifically, the poverty of Heungbu was realistically shaped by the setting that he could not become rich even if he received the benefit of swallow. However, this depiction of Heungbu paradoxically overlaps with his actual situation, which was that he had to solve the problems of a large family, and indicates an ironic self-satire effect. In this context, <Heungbu-傳> is interpreted as being critical of the harm caused by the traditional inheritance system of Joseon and reflecting the will to deny the same through the conflict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succession of Jangja.

Key Words: Chae Man-Sik, ShimBongSa, HeongBu-傳, Parody, Logic of Reciprocity, Secularization, Symbolic Punishment, Conflict between Rich and Poor, Traditional Family System, Tyrannical Power of Patriarch, Traditional Inheritance System, Criticism and Satire

	심사완료일	
논문접수일: 2020.12.27.	1차 심사: 2021.01.02. 2차 심사: 2021.01.02. 3차 심사: 2021.01.02.	게재 확정일: 2021.01.04.